부처님께 고하고 오직 정진할 뿐

반야 참회로 여는
수행의 첫걸음

⑨ 축원 시 참고 사항과 발원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축원을 올릴 때의 참고 사항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자신의 소원이 여러 가지일 경우에는 그 소원을 다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흔히 한 가지 소원만 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불자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소원을 빌면 욕심이 많은 것 같아 부처님이 다 들어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소원만 비는 것이 더 큰 욕심일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원이 이뤄지느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자신의 고통이나 바람을 있는 그대로 전부 다 부처님께 호소하고 의지하는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신행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전부 다 부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좋다.

둘째, 자신을 위한 소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대부분의 불자들이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하지 않는다. 이것은 일견 양심적이고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다. 자기가 없으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교의 출발점이다.

자신이 빠진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자신에게 병이나 힘든 일이 생길 때 의지처가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동안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하는 회의가 들어 신행을 포기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족이 아니라 '자신이' 돈을 벌고 싶다든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든가, 병이 낫게 해달라든가, 고통을 해결해 달라든가 하는 등등의 바람을 부처님께 축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편안한 임종을 맞고 싶다든가, 극락세계에 가고 싶다든가 하는 등 죽음과 내세에 관한 문제도 축원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수행이나 기도를 하는 데 장애가 많을 경우에는 장애를 극복하게 해 달라는 축원을 자주, 그리고 간절하게 올려야 한다. 이렇게 지속하면 어느 날 아침 햇살에 이슬이 사라지듯이 장애가 사라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

이렇게 해나가다가 수행 수준이 높아져서 해오의 단계를 지나면 점점 자신을 위한 소원이 필요 없게 되는 때가 온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한 축원만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면 일체중생을 위한 회향도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그때까지는 자신을 위한 축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실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부처님께 소원을 빌 때 자신은 별로 노력하지 않고도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현실에서도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은 축원이자 동시에 다음에 설명할 발원도 된다.

따라서 부자가 되기를 축원한다면 현실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몸이 아파서 건강하기를 축원한다면 병원에도 가고 운동도 하고 음식 조절도 하는 등 병이 빨리 나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부처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한량없다고 해도, 스스로 현실에서 올바른 노력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더욱 빨리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넷째, 소원 성취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대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원 성취는 '내 욕심대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일도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짜증을 내기도 하고 기도를 포기하기도 한다. 또 작지만 의미 있는 결과가 있을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무시해 버린다. 이런 생각이 바로 집착이다. 이런 자세는 오히려 더 큰 복 받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올바른 소원 성취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만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인연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라는 바를 축원하되, 결과는 부처님께 맡기고 나는 오직 기도만 열심히 할 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모든 고통·바람, 부처님께 호소
최선 다짐·노력하고 결과 집착 없어야

성불 향한 적극 의지 발원, 축원과 달라
바른 불교 신행 위해 반드시 원 세워야

반야 참회 발원, 맹세·다짐·선업 세 가지
기도, 보시, 교리 공부, 화안애어로 실천

• 발원

발원(發願)이란, 자신의 소원을 이루게 해 달라고 비는 축원과는 달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바른 목표-이것을 원(願)이라고 한다-를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겠다고 부처님께 다짐하는 신행이다. 즉 축원은 부처님의 자비에 의존하는 소극적 행위이며, 발원은 성불을 향한 의지의 표명으로 적극적인 행위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축원과 발원은 완전히 다른 신행이므로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그런데 요즈음 우리나라의 많은 절에서는 소원을 비는 축원을 발원에 포함시켜 형식상으로는 축원과 발원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불자들이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고 소원 비는 것을 발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하여 소원 성취의 기복 신앙만 있고 발원이라는 것은 허황된 용어로만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신행이 힘을 잃고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소원을 비는 기복 신앙은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거기에만 매달리게 되면 자신의 삶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기 힘들다. 즉, 감각적이며 무상할 뿐인 욕망의 대상에 갈수록 더 집착하게 되어 고통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불교 신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을 세워야 한다.

반야 참회에 포함된 발원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참회 그 자체가 발원으로서, 악업을 참회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맹세가 발원이 되는 것이다.

둘째는 축원할 때 자신이 바라는 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이 발원이 된다. 이 두 가지는 그 자체가 바로 발원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발원이 필요 없다.

셋째는 적극적으로 선업을 짓겠다는 발원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목표를 정해서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이다. 사람에 따라 소원은 없을 수도 있으나, 이 발원은 성불로 향하는 필수 요건이므로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아래의 설명은 이 세 번째에 해당된다.

발원의 내용으로는 입문 단계에서는 매일 기도, 보시, 교리 공부, 화안애어(和顔愛語) 등이 좋다. 아직 예불이나 기도가 일상으로 자리 잡지 못했을 때는 매일의 예불과 참회 기도를 발원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보시는 금전이나 육체노동 등으로 남을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데, 사찰에 올리는 공양이나 봉사 활동도 포함된다.

교리 공부는 일반적인 불교 관련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며, 화안애어란 부드러운 말과 밝은 표정으로 친절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일은 시간과 돈이 들어야 할 수 있지만 화안애어는 아무 때나 돈 없이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입문 단계에서 하기 쉬운 발원이다.

특히 참회 기도를 하는 불자들은 최대한 화안애어를 실천해야 한다. 기도를 시작하는 그 날부터 바로 부처님의 가피가 지금 나에게 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서 밝은 표정과 친절한 말, 그리고 활기찬 행동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의지로 하게 되지만 시간이 흐르면 습관적으로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부처님의 가피를 빨리 체험할 수 있다.



혜룡 스님
서울 반야법회·부산 일심회 지도법사

불기 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축하광고 접수 받습니다

불기 2570년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현대불교신문사는 병오년 봉축특집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세상의 어지러움을
희망과 나눔의 등불로 가득 비출 수 있도록 자비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다시 희망과 꽃피는 일상으로
평화롭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본 사		T 02)2004-8204	F 02)737-0698
경기남부지사		H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H 010-5323-0834	
부 산 지 사	이도경	H 010-5640-8883	
경 남 지 사	성낙두	H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H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동제	H 010-8642-7733	
대구경북지사	김선행	H 010-4152-4376	
충 청 지 사	유재상	H 010-8341-0560	
강 원 지 사	이동격	H 010-7339-8688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문의 02)2004-8204 hyunbul1994@naver.com
계좌번호 KB(국민)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